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사도행전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5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도행전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증인의 모습



하늘의 영으로 내려주신 크신 선물,
성령님은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셔 주님과 하나 되고,
화목을 명하신 주의 음성 듣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의 십자가,
몸과 마음 다하여 지키고 전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 된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피 흘려 살려주신 십자가의 크신 은총,
이제는 충성된 종 내가 지고 나갑니다.

어느덧 6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도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뜨거운 날씨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총현의 가족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달에도 우리교회의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2005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써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사역에 온 성도가 헌신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교구가 성장하여 온 교회가 참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양육과 훈련의 모임을 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소서.
- ⑥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습도 10%증



도모 나하 토남주 쓰하시라 님동상
신니습글 상을 이주 신하행 을모하

S000275 6월호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증거에 이어 본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은 본서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명령에 따라 본서의 내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서를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이해할 때에 1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바, 1장을 기점으로 하여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장은 본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1장은 머리말(1-5절), 예수님의 승천(6-11절), 다락방 기도(13-14절), 가롯 유다의 종국(15-19절), 사도로 뽑힌 맛디아(20-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의 어긋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인데(6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역에 제자들이 주역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매일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오순절에 이르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장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셨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본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1-13절), 성령 강림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중반부(14-41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교회 분위기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42-4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단번에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38절)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으로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증거할 때에는 모든 이방인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공동체가 보였던 결과에 대해서,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며 나를 부인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①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교제와 하늘 잔치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얏은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본장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부터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왕되어 나가며 자연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은 얏은뱅이 치유(1-10절)와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11-16절)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17-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의 선포에서 시작하여 죄에 대한 회개에의 요청으로 진전되는데, 이 설교는 얏은뱅이 치유 사건을 계기로 행하여진 설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 의미, 죽음, 부활, 승천 등 기독교론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 때에는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본장의 설교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다는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얏은뱅이의 관심은 지금 당장 구걸해서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적 적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얏은뱅이가 육적 양식을 얻는 데만 급급하고 영적 양식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한 그가 앉아 있던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은 당장 급하다고 하여 땅의 일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도와줄 때에도 그들의 현안을 보고 물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복음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눈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혼의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작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앓은뱅이를 치유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교회가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내면적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1-4절), 베드로의 지혜로운 변증(5-12절),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13-22절), 감사와 찬양의 기도(23-31절), 나눔 공동체(32-3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권주의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용기 있는 자세는 한마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 합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옛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가 삶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험산 준령이 우리의 앞에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 제목 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는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태동된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4-7장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가열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흥왕하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육적 소욕으로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1-11절), 교회 내적인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모습(12-16절),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내용(17-4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당시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순전하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 통용하며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의 사랑을 배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망각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배반하는 일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다가올 핍박에 대비한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점점 흥왕해지는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고 더욱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조직과 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있는 긴장의 심화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분출되었지만,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요 이방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고 이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갈등 국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부의 조직과 체제를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열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일곱 집사'가 피택된 것(1-7절), 후반부에는 그 집사 중 한 명인 스테반의 활약(8-15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집사'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종,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도와 장로들을 도우며, 예배 의식을 도왔으며, 외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등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에 집사는 예수님께서서 가르치신 '섬김의 도'와 잘 부합되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를 살폈으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칭찬을 들을 만한 인격자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준비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항상 말씀의 거울을 비추며 점검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한 스테반의 설교는 정통 유대인들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스테반이 순교 당했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태동되었고 말씀 속에서 날로 부흥하는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주위의 성읍들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영내에서만 국한되어 선교 활동을 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극적 자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부는 스테반의 설교로서 아브라함의 교훈(1-7절), 요셉의 교훈(8-16절), 모세의 교훈(17-36절),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37-43절),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44-53절)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54-6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이 박해의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두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영적 무지로 인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순교는,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도록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 ① 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1절).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 서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는 일에 열심입니다(3절). 심지어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행 22:4). 그러나 하나님은 큰 핍박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4절).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전도와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전도의 열매도 맺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몇 년 전에 사마리아 땅에 큰 빛이 비취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물을 길으러 나온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입니다. 그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요 4:13,14). 그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또 한번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롬 10:17).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빛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믿었기 때문입니다(요 16:2). 사울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사람을 찾아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2절).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4절). 사울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마는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위협과 살기의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주님의 종이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사울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요 1:12).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해서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2절).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거하는 읍바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한편, 이를 후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9절). 그 환상 가운데 가증한 짐승이 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19,20절).

당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율법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36,37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모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41,42절).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43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자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스데반의 순교와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이방인의 땅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22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한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24절).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 선교사역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능력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일꾼이 양성되어 복음의 빛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막 16:15).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눅 12: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충만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1,2절). 교회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사도요한의 순교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해질수록 성도의 믿음과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5절).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은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옥에서 구출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6,7절).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행 26:22).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행 20:24).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기도 제목 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복음만 담대하게 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하여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이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4절). 본문은 선교사의 파송이 ‘성령께서 보내신 일’로 기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5절). 교회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증거하는 자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마 4장). 선교는 영적 전쟁터에서 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기도 제목 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교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현장마다 사단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가 선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2,3절).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22절).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엡 2:1-3).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듣거나 배척하거나 관계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증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눅 1:79). 초대교회에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음증거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주위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末世之末)이고 주님의 재림이 불완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음증거에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중에 할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1절).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2절). 회의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11절).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도록 하였습니다(20절).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선행이나 외적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공적으로 천명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 외에 인간의 것을 부가적으로 더하여 구원의 요소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할례나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신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윤리, 우리의 지식 등은 구원을 얻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21).

기도 제목 ①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행 15:36). 여기서 바울은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의 하나인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누가는 본장에서 디모데의 인간됨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향후 그가 맡게 될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담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여행은 더욱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번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주의 영'의 지시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を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6-7절)

결국 바울은 행선지를 바꾸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9-10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은 전도 사역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하시니라"(9절). 여러분은 단기 선교를 포함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 분주하거나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의하여 그분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 16:3).

기도 제목 ①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
아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피하여 베뢰아로 가게 되었습니다(10절). 베뢰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11절).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탐구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주로 재판, 판결을 정의롭게(편견 없이) 하기 위하여 철저히 따지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베뢰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뢰아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말씀 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 자체가 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늘 상고할 때 말씀의 영이신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절). 2차 전도 여행의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본장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즈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전 2:3).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와(5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행 18:2-4).

이렇게 바울의 주변에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갈 4:1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선교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선교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없다면 그것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 역시 타인들에게 동역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고후 8:23).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옵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본장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일에 주력하면서도 친히 자기의 양식을 위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서신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고전 5:9,10). 그러나 바울은 이미 이런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할 소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행 19:21).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이런 업적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딤후 4:7-8).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행한 믿음의 일들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커다란 선교적인 성공을 거두는 시점에서조차 로마를 생각하며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로마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행 20:2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3년 동안의 에베소 전도를 끝낸 바울은 마게도나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후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4-12절)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별사 성격을 띤 이 설교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및 부탁의 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주로 이방 유대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와 변증을 하였습니다(13:16-41). 그러나 여기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담한 자기 고백과 신앙적 결의가 돋보이는 이 글에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겸허하게 걸어간 불굴의 신앙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후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기도 제목 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전도 여행의 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와 작별하고 난 후 두로, 돌레미이, 가이사랴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선교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20,21절).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형제와 함께 예식을 거행할 것을 바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선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흔쾌히 이 제의에 응하였습니다.

실로 바울은 형제를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었고, 스스로 헬라인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20-21). 바울은 이렇게 타인들에 대하여 관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용납하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타인들에게는 관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과 인내로 용납하고 품어 줄때 그들 역시 차차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롬 24)

기도 제목 ① 자신에 대하여는 철저하며 타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 경위를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스테반의 설교와 흡사한 말로써 설교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이 설교에는 바울의 출생과 성장 내력(3, 4절), 회심 과정(6-16),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받게 된 경위가 밝혀져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 기록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교의 가치는 남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여파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담대하게 증거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위의 만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향하여 냉대와 조소가 쏟아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증거 해야 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2,13).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 28:31).

기도 제목 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사람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줄 알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소동으로 예루살렘이 소란스럽다라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급히 군사를 보내어 바울을 잡아 심문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시민인 줄 알고는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변호의 시간마저도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무리까지 생길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그를 벨릭스 총독이 있는 좀더 안전한 가이사랴로 옮겨 보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오직 복음 전파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11절)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복음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현재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고난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고후1:3-5).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닥치는 모욕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1:12)

기도 제목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가이사라의 헤롯궁에 감금된 지 닷새 후에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고소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다할 죄도 없이 잡혀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흔들림이나 원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21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바울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원래 벨릭스 총독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대제사장까지 살해하는 무자비한 폭군이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사용해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수일 후에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듣고자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듣는 자의 마음과 전하는 자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있는 척하였으나 실상은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26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벨릭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나...”(갈 6:14)

기도 제목 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② 송요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을 구금시켰던 총독 베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의 뒤를 이어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소송 문제도 자연스럽게 신임 총독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바울은 다시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재판정에 서야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덮어 씌운 거짓 죄목들을 빙자하여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조롱과 모욕을 또다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도, 재판의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금 고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오도록 만드셨습니다(1-5절).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밝혀졌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베스도와 로마 관원들이 오히려 바울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재판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6-12절). 바울의 재판을 통하여 베스도는 물론이고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립바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13-27절). 우리는 종종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 항의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인도되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이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로마 정부의 고위관리들을 상대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전하였던 증거 가운데서 가장 박력 있고 장엄한 복음을 이곳에서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자신을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 앉아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상세히 말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6-18절).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19-23절). 바울은 '미쳤다' 라고 하는 베스도 앞에서도, 조롱하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로되...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29절) 아멘! 원래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여기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재판장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죄수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기도 제목 ① 조롱과 핍박이 와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2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이 겪은 고난을 돌이켜 보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우상의 집결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훈련과정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훈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이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절, 골4:10-14).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목사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배는 로마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출항을 뒤로 미룰 것을 권면하지만 백부장은 선장을 말을 듣고 출항합니다. 물론 선장의 말을 따른 백부장의 판단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경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달리자 의기양양하였습니다(13절).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까지 이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사 43:2)

기도 제목 ①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과 그의 일행은 주님의 섭리로 폭풍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메리데섬에 상륙합니다. 주님은 그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에 헌신된 자녀들을 보호하심은 물론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주님께 헌신된 종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1-10절)

석달 후 봄이 되자 다시금 로마로 출발한 바울은 보디올에서, 로마에서 복음의 형제들과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식사술에 찬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장 초라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바울을 만나기 위해 하룻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11-15절)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자녀들이 서로를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비록 부자유스러운 처지였으나 주님은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의 감옥 선교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16-29)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30-31절)은 복음전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강한 여운을 남겨두었는데 이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 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딤후 29)

기도 제목 ① 바울의 뒤를 이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복음의 역군이 됩시다.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우리들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한결갈길 원합니다(2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가 주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벽과 낮과 밤 심지어 꿈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7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2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가슴으로 우리나라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참마음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깨달아 그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3절). 다윗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향한 송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모든 세대의 입술에서 울려 퍼짐으로써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13절).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시 145:21)

기도 제목 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깨닫게 하소서.
② 한국교회의 모든 해외 선교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1-2절). 잠깐에 불과한 우리의 생을 허무한 것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어린양을 찬양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져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3-4절).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하신 신실함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5-6절).

압박당하는 자와 주린 자 그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시편가자는 찬양합니다(6-9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가자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a)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해방시키시고 죄때문에 억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46:1)

기도 제목 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한 내마음 이양양 의로우 크로우 다시습습 저협양양 음양양 의로우
 을남지하 크라이승 금모 의양 크있어습 다시도 다시를모 고자 금있 어남
 배남 토으것 한무하 음양 의로우 협하를 배양양 (장가-1) 다시협양 양협양양
 협양양 토으를지 세이되니 의남주 협하여지치로우 토으것 다시이이엇 크하
 배남도 크하하 이양 의세양 이 신하하 배이로우 저협남주 국협양양 을
 세이양양 다시협양 불지지하 협을 저거남 다시소 국협양양 을남주 지
 쿨 토으를 음두를 고를도 오시습지 저하하의 음양양 크지하하 도그것 불
 소 의로우 조오 (장가-2) 다시협양 협하를 배양양 크협양 크협 배양주 협하
 양 양하하 크지스스지 불주우 토으협양양 신하양양 도이으지 불지하 음양
 (장가-3) 다시협 배하하의 을남협남니

한크 음양 의양 소 비로양양 다시 협양 도도도 지 불주 주하 크하양하
 지크지 한들 음양 의어어 도사보를 불부하 의어어 도사하양지 을어어 도하
 지협지 음양지 음양을 배양도 (장가-4) 다시협양양 크지지협지 을남지하 지
 다시습습지하 도협 양 배양도 의어
 지하 배하하 음음불 배어지 협남지 크이 나으것하함 배하 이양양 의주
 배지 의국 불유지 배어지 모도포 다시보 불지 도이으부 음양지 배지 도하
 배양 불배 의협을 의주 도하 배유지 불지 양을 배하하하 음양 배보 사지 배
 배지하 불로우 다시협코스지도 수배 배양이 (장가-5) "비이양지 하하 배하
 배하 배유지 음양양 양양을 배양배하 도사지사양양 토으협양양 배배이오
 주 협양양 을남주 크로우 배지치도 배지니배을 음양을 저만 이 다시습
 다시협양 협양양 음양 신하협양 불배을 의주 다시하 배이을 배양

(장가 사) 비협양양 불양하하 이양양 배 이양양

소 배양 배 ① 다시협지하 지하 배협양 의협양 양협양 의주 ① 불배 고지
 을주 배협양 불협양 배이배도 다시하 배하크지 배하 음지 크이배

사소

불배고지 배하 배우 배협양

구역예배공과

부목회 토의대상

습모 의인증

6월 구역공과 포인트

성령으로 화목된
증인의 모습

성령으로 화목된 증인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6/3	요 16:13-15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하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다.
6/10	고후 5:18,19	놀라운 화목	성령의 사역으로 화목케 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6/17	단 3:27-29	그들의 증언	증인의 사명으로 나타난 생명의 증거를 선포한다.
6/24	롬 10:16-18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생명의 증언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진다.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 성령의 사역

| 포인트 |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다.

| 찬 송 |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 본문 요 16:13-15 |

¹³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¹⁵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우리들의 가슴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그분은 삼위하나님 가운데 한분이시며, 성령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 브라운

| 송 정

이 귀한 성령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와 마음속에 들어 오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이셨습니까?

| 리-티케 요 무복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성령님의 사역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성령님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성경을 찾아 적어보세요)

거듭남 (요 3:5)

예 배 (요 4:24)

화 목 (엡 2:18)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하거나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2. 우리의 인도자 성령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다음의 성경구절과 관련된 내용을 줄로 이어 보세요.

- 엡 4:30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
- 살전 5:19 ·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 마 6:24 · 성경을 소멸치 말며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순되고 혼란스런 마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8-10

“그가 와서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3. 우리를 위한 선물, 성령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다 측량할 수 없습니
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전 12:8-11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 말씀을, 어
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함을, 어
떤 이에게는 ☐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함을 주시나
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
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도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통치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멈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2. 놀라운 화목

| 포인트 |

성령의 사역으로 화목케 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 찬 송 |

467장 (내게로 와서 쉬어라)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본문 고후 5:18,19 |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¹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화목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이며, 누군가와 관계나 태도가 적대적인 것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목케 되었습니다.

· 설교 읽고 나누기

1.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복음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을 이룰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은 오직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을 이루셨습니다.

(*주일설교 내용에서 찾아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0)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효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후 5:21)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기를 자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된 것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골 1:20, 마 26:28 참조)

요한복음 15장 4-6절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나누어 봅시다.

3.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엡 2:16)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를 세상에 보내었고 ...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으로 알게 하려 함이 로소이다" (요 17:18-23)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통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사역을 맡은 자로서 벅찬 가슴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역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되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2. 화목케 하라고 하신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3. 그들의 증언

| 포인트 |

증인의 사명으로 나타난 생명의 증거를 선포한다.

| 찬 송 |

449장 (나이 세상의 친구들)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본문 단 3:27-29 |

27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
 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
 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
 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 설교 읽고 나누기

1.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또 거짓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을 얻게 하고 더 ☐
☐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내시리이다 (단 3:17)

많은 사람들이 물질, 결혼, 가정, 건강, 경력, 명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자신이 처해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탓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지키려고 힘쓰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왕의 침략을 통해 유다는 망하게 되고 유다의 유력한 인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은총을 받아 누렸습니다. 비록 타국의 노예로 있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동화정책으로 유다의 인재들을 자신들의 고위관리로 양성하여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상당한 지위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명과 바벨론식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단 1:7)

다니엘

그런데 이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타는 풀무불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우상에게의 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바니엘 금신상 앞을 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도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참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말로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 간절한 기도 |

1.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2.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단 3:29)

수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불길은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지만, 세 사람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켜본 느브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임재의 체험 (단 3:24,25)

증인의 고백 (단 3:28)

증언의 선포 (단 3:29)

세 사람의 생명을 건 신앙고백은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느브갓네살 왕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 포인트 |

생명의 증언으로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진다.

| 찬 송 |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39장 (사랑의 하늘 아버지)

| 본문 롬10:16-18 |

¹⁶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¹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 설교 읽고 나누기

1. 하나님의 말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롬 10:16)

같은 말씀을 듣지만 사람마다 그 반응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를 받으리라” (막 16:15,16)

2. 기쁨을 주는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 1:8)

오순절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이들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과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에도 참석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3. 진리의 말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4)

말씀을 들을 때 화가나고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신을 지목하여 책망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6:66 (성경을 찾아 써보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증오와 반감의 악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럴 수 없음을 알고 곧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로 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도, 혹은 영원한 형벌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악한 것이 발견된다면 돌이키십시오.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유혹에 근심하여 떠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어 온전한 증언자로 서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누가, 왜 바울을 떠나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면, 동의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5. 은혜의 샘이신 말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엡 4:19)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1,12)

여러분은 처음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유혹으로 방탕에 빠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의 샘이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섬멸 오남나하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롬 10:16-18)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갑니다. 또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16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태도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정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요일 5:1).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기 시작합니다(행 7:54). 성경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 정말로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혁명가도 아니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에 동의하지만 슬픈 마음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 19:21).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인 줄은 알았지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럴 수 없음을 알고 곧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데마처럼 그리스도보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딤후 4:10). 이사야 55:7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쁨을 주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해야 할지 묻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46,4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뿐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눅 19:5-6). 삭개오는 집이 지저분하다고 걱정하거나 유대 사회의 규례와 문화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행 8:4-8).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찢을지라도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8). 잘못된 태도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회개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거나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자가 자신을 꼭 집어서 말한다거나 책망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를 갈

은혜의 샘이신 말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며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십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가 그들을 알아주고 높여주면 관습과 전통만 고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예배에 참여하는 척하며 교회의 지도자라고 앉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십자가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 4:19). 호세아 4:17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몇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1,12). 고린도후서 5:17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도, 혹은 영원한 형벌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거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제발 근심하여 떠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쓰촨 [시앰] 의흥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정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인도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입구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6월호)

발행인 | 김성훈

편집인 | 최광현

집필진 | 만나: 최성규(1-7일), 이재영(8-14일), 황전섭(15-22일), 정성영(23-30일)

구역예배총과: 김성훈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200) [비매출]